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2007년 산업연관표(연장표) 부속 고용표」 기준)

고용표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노동량을 파악하여 최종수요에 의해 유발되는 노동량을 계측하기 위해 작성되며,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 예측과 인력수급 계획 및 거시경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2007년 고용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07년중 우리나라의 총 취업자는 1,878만 4천명으로 2006년에 비해 72만명(+4.0%) 증가하였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상용직이 임시 · 일용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증가인원의 96.1%를 차지하여 고용증가를 주도하였다. 직업 · 학력 · 성별로 취업구조를 살펴보면, 전문직 및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은 2000년 이후 계속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 비중도 2005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노동연관효과를 나타내는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 수)와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당 전산업에서 직 ·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모두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이 점차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2000년 이후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건설업은 당해 연도 건설경기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2000년 이후 수출의 고용창출 능력은 소비 및 투자보다 빠르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상품인 기초소재 및 조립가공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입 원자재 및 중간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의 육성과 간접취업유발효과가 큰 제조업부문의 원천기술 개발 및 소재부품 국산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고용증가를 서비스업, 전문직, 대졸이상, 여성취업자가 주도한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직업교육 및 산학연계 시스템 마련, 고학력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Ⅰ. 고용표 개요

Ⅱ. 2007년 취업구조
1. 개황
2. 산업별 취업구조
3. 직업별 취업구조
4. 학력별 취업구조
5. 성별 취업구조

Ⅲ. 노동연관효과
1. 노동계수
2. 노동유발효과

Ⅲ. 요약 및 시사점

Ⅰ. 고용표 개요

고용표는 일정 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양적 · 질적 노동량과 최종수요에 의하여 유발되는 노동량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로서,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수요의 예측, 인력수급 계획 및 거시경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고용표에 사용되는 노동량은 양적 지표(취업자, 피용자,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와 질적 지표(직업별, 학력별, 성별)로 구분되며, 투입 노동량의 측정단위는 연간기준 인원(man-year)[1]이다.

「2007년 고용표」는 「2007년 산업연관표」와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으며, 취업 · 고용계수와 취업 · 고용유발계수는 2005년 가격으로 작성된 2000-2005-2006-2007년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도출되었다.

1) 사업체 조업기간과 근로자 근무기간을 감안하여 투입 노동량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6개월만 조업한 사업체의 근로자 1명과 1년 동안 계속 조업한 사업체에서 6개월만 근무한 근로자 1명은 각각 연간 기준인원으로는 0.5명으로 환산된다.

II. 2007년 취업구조

1. 개황

2007년중 우리나라의 총 취업자[2]는 1,878만 4천명으로 2006년 대비 4.0% 증가(+72만명)함으로써 2000년 이후 경기호조를 반영하여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취업자를 고용형태별로 구분하면 피용자[3]는 1,340만명으로 총 취업자의 71.3%,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538만 4천명으로 28.7%를 각각 차지하였는데, 2006년에 비해 피용자 비중은 0.5% 포인트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0.5% 포인트 하락하였다.

취업자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06~2007년 기간중 피용자는 상용직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반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는 2.2% 증가에 그쳤고, 특히 피용자는 2000~2005년 임시 · 일용직 중심의 증가에서 2005년 이후 상용직 중심의 증가로 변모하였다.

〈표 1〉 **고용형태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00~'05	'05~'06	'06~'07
피 용 자	10,749 (64.5)	12,381 (70.3)	12,797 (70.8)	13,400 (71.3)	1,633 [2.9]	416 [3.4]	602 [4.7]
상 용 직	8,515 (51.1)	9,171 (52.1)	9,553 (52.9)	10,046 (53.5)	656 [1.5]	382 [4.2]	493 [5.2]
임시 · 일용직	2,234 (13.4)	3,211 (18.2)	3,244 (18.0)	3,353 (17.9)	977 [7.5]	34 [1.1]	109 [3.4]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	5,928 (35.5)	5,220 (29.7)	5,266 (29.2)	5,384 (28.7)	-707 [-2.5]	46 [0.9]	118 [2.2]
합 계	16,677(100.0)	17,602(100.0)	18,064(100.0)	18,784(100.0)	925 [1.1]	462 [2.6]	720 [4.0]

주 : 1) ( )내는 구성비
2) [ ]내는 기간중 연평균 증감률

2) 취업자는 피용자와 자영업주 ·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다.
3) 임금 근로자로서 상용직과 임시 · 일용직으로 구성된다.

2. 산업별 취업구조

가. 취업자 기준

2007년중 산업별 취업구조(취업자 기준)를 보면, 서비스업이 전체 취업자의 63.5%(1,192만 1천명)를 차지하여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17.7%(333만 3천명), 농림어업 9.3%(174만 9천명), 건설업 9.0%(169만 1천명) 순이었다.

산업별 취업구조 추이를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은 2000년 18.7%에서 2007년 17.7%로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2000년 59.8%에서 2007년 63.5%로 계속 상승하였다.

제조업 취업자의 비중이 하락한 것은 섬유 및 가죽제품과 전기 및 전자기기 부문 등에서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및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가 증가하여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데 주로 기인하였다.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승한 것은 전문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 확대, 인력공급업 및 교육서비스 부문의 아웃소싱 증가 및 사교육 지출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종사인력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2007년중 총취업자 증가(72만명)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서비스업이 96.1%(69만 1천명)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8.1%(5만 8천명), 건설업 3.2%(2만 3천명) 순이었다.

업종별 기여율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24.3%), 교육 및 보건(23.0%),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2.5%) 등이,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장비(3.8%), 금속제품(2.2%) 등이 각각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 기여율 추이를 보면, 서비스업(96.1%)은 2006년(77.2%)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대형종합소매업(할인매장)과 체인화 편의점의 경쟁적 점포수 확충에 따른 도소매의 기여율 증가(2.1% → 24.3%)에 주로 기인하였다.

반면, 건설업(3.2%)은 전년(19.9%)보다 크게 낮아지고 제조업(8.1%)은 전년(8.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2〉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00~'05		증감 '05~'06		증감 '06~'07	
									증감	기여율	증감	기여율	증감	기여율
농림어업	2,245	(13.5)	1,830	(10.4)	1,804	(10.0)	1,749	(9.3)	-415	[-44.8]	-26	[-5.6]	-55	[-7.7]
광업	19	(0.1)	17	(0.1)	17	(0.1)	17	(0.1)	-2	[-0.2]	-1	[-0.2]	0	[0.1]
제조업	3,115	(18.7)	3,236	(18.4)	3,275	(18.1)	3,333	(17.7)	121	[13.1]	39	[8.4]	58	[8.1]
소비재업종	1,084	(6.5)	912	(5.2)	898	(5.0)	897	(4.8)	-172	[-18.6]	-14	[-3.1]	0	[-0.1]
음식료품	283	(1.7)	281	(1.6)	282	(1.6)	280	(1.5)	-2	[-0.2]	2	[0.3]	-3	[-0.4]
섬유·가죽제품	511	(3.1)	356	(2.0)	337	(1.9)	330	(1.8)	-154	[-16.7]	-20	[-4.3]	-7	[-1.0]
목재·종이제품	106	(0.6)	101	(0.6)	101	(0.6)	101	(0.5)	-5	[-0.5]	0	[-0.1]	1	[0.1]
인쇄·복제	50	(0.3)	63	(0.4)	66	(0.4)	77	(0.4)	12	[1.3]	3	[0.7]	10	[1.5]
기타제조업제품	133	(0.8)	111	(0.6)	112	(0.6)	110	(0.6)	-23	[-2.5]	1	[0.2]	-2	[-0.2]
기초소재업종	788	(4.7)	903	(5.1)	920	(5.1)	951	(5.1)	115	[12.5]	17	[3.6]	31	[4.3]
석유·석탄제품	18	(0.1)	14	(0.1)	18	(0.1)	18	(0.1)	-4	[-0.5]	4	[0.8]	0	[0.0]
화학제품	324	(1.9)	378	(2.1)	374	(2.1)	376	(2.0)	54	[5.8]	-4	[-0.8]	2	[0.3]
비금속광물제품	109	(0.7)	103	(0.6)	102	(0.6)	104	(0.6)	-6	[-0.6]	-2	[-0.4]	2	[0.3]
제1차금속제품	112	(0.7)	119	(0.7)	122	(0.7)	132	(0.7)	6	[0.7]	3	[0.7]	10	[1.4]
금속제품	225	(1.3)	290	(1.6)	305	(1.7)	321	(1.7)	65	[7.0]	15	[3.3]	16	[2.2]
조립가공업종	1,243	(7.5)	1,421	(8.1)	1,457	(8.1)	1,485	(7.9)	178	[19.2]	37	[7.9]	28	[3.9]
일반기계	311	(1.9)	345	(2.0)	359	(2.0)	367	(2.0)	35	[3.7]	14	[3.1]	8	[1.1]
전기·전자기기	559	(3.4)	616	(3.5)	611	(3.4)	605	(3.2)	57	[6.1]	-5	[-1.1]	-6	[-0.8]
정밀기기	62	(0.4)	82	(0.5)	88	(0.5)	86	(0.5)	20	[2.1]	6	[1.3]	-2	[-0.2]
수송장비	311	(1.9)	377	(2.1)	399	(2.2)	426	(2.3)	67	[7.2]	22	[4.7]	27	[3.8]
전력·가스·수도	75	(0.4)	69	(0.4)	70	(0.4)	72	(0.4)	-6	[-0.6]	1	[0.3]	2	[0.3]
건설업	1,249	(7.5)	1,576	(9.0)	1,668	(9.2)	1,691	(9.0)	328	[35.4]	92	[19.9]	23	[3.2]
서비스	9,974	(59.8)	10,873	(61.8)	11,230	(62.2)	11,921	(63.5)	899	[97.1]	357	[77.2]	691	[96.1]
도·소매	2,851	(17.1)	2,697	(15.3)	2,707	(15.0)	2,882	(15.3)	-154	[-16.6]	10	[2.1]	175	[24.3]
음식·숙박	1,370	(8.2)	1,398	(7.9)	1,403	(7.8)	1,495	(8.0)	28	[3.1]	5	[1.1]	91	[12.7]
운수·보관	798	(4.8)	956	(5.4)	964	(5.3)	991	(5.3)	158	[17.0]	8	[1.8]	27	[3.8]
통신·방송	144	(0.9)	152	(0.9)	152	(0.8)	161	(0.9)	8	[0.9]	0	[0.1]	9	[1.2]
금융·보험	699	(4.2)	550	(3.1)	565	(3.1)	602	(3.2)	-149	[-16.1]	15	[3.2]	37	[5.1]
부동산·사업서비스	963	(5.8)	1,541	(8.8)	1,690	(9.4)	1,852	(9.9)	578	[62.5]	149	[32.3]	162	[22.5]
공공행정·국방	675	(4.0)	700	(4.0)	710	(3.9)	725	(3.9)	25	[2.7]	10	[2.1]	15	[2.0]
교육·보건	1,424	(8.5)	1,850	(10.5)	1,967	(10.9)	2,132	(11.4)	426	[46.1]	117	[25.3]	165	[23.0]
사회·기타서비스	1,050	(6.3)	1,028	(5.8)	1,070	(5.9)	1,081	(5.8)	-22	[-2.4]	43	[9.2]	11	[1.5]
전산업	16,677	(100.0)	17,602	(100.0)	18,064	(100.0)	18,784	(100.0)	925	[100.0]	462	[100.0]	720	[100.0]

주 : 1) (　)내는 구성비

한편 2007년중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구조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제조업 비중은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보다 높지만 독일과 이탈리아보다는 낮았고, 서비스업 비중은 이들 국가보다 낮았다. 반면 건설업 비중은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 **주요국의 취업구조**

(단위 : 천명, %)

	한국	미국[1]	일본[1]	독일[2]	이탈리아[2]	네덜란드[2]
	2007	2006	2007	2007	2007	2007
농림어업	1,749 (9.3)	1,485 (1.0)	4,573 (6.7)	859 (2.3)	924 (4.0)	260 (3.1)
광업	17 (0.1)	910 (0.6)	38 (0.1)	107 (0.3)	39 (0.2)	9 (0.1)
제조업	3,333 (17.7)	19,320 (12.5)	11,267 (16.6)	8,395 (22.0)	4,870 (21.0)	1,033 (12.4)
전력·가스·수도	72 (0.4)	838 (0.5)	349 (0.5)	334 (0.9)	139 (0.6)	42 (0.5)
건설업	1,691 (9.0)	11,799 (7.7)	5,564 (8.2)	2,527 (6.6)	1,955 (8.4)	505 (6.1)
서비스업	11,921 (63.5)	119,694 (77.7)	45,994 (67.9)	25,940 (67.9)	15,259 (65.7)	6,460 (77.7)
전산업	18,784 (100.0)	154,047 (100.0)	67,786 (100.0)	38,163 (100.0)	23,222 (100.0)	8,310 (100.0)

주 : 1) ILO 노동통계(http://laborsta.ilo.org) 상의 해당국 취업자 수를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 2000(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2006.3월)를 이용하여 연간기준 인원(man/year)으로 환산
2) ILO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3) ( )내는 비중

나. 피용자 기준

2007년중 우리나라의 피용자(man-year 기준, 이하 같음)는 13,400천명으로 나타났는데, 산업별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이 63.4%(849만 2천명)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22.4%(299만 9천명), 건설업 12.1%(162만 8천명), 농림어업 1.4%(19만 4천명) 순이었다.

업종별 피용자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교육 및 보건(14.4%),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12.6%), 도소매(10.1%)가,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4.4%), 수송장비(3.1%)가 각각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 피용자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은 2000년 60.4%에서 2007년 6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2000년 26.1%에서 2007년 22.4%로 계속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교육 및 보건,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가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섬유 및 가죽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가 감소를 주도하였다.

한편 농림어업은 취업자가 감소(180만 4천명 → 174만 9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용자는 증가(18만 1천명 → 19만 4천명)하였는데, 이는 농업 및 어업생산활동의 기업화에 주로 기인하며 2006년에 이어 피용자의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2007년중 총피용자 증가(60만 2천명)에 대한 산업별 기여율을 보면, 서비스업이 85.3%(51만 3천명)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9.2%(5만 5천명), 건설업 3.1%(1만 9천명), 농림어업 2.1%(1만 2천명)의 순이었다. 업종별로 기여율을 살펴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25.5%), 교육 및 보건(21.9%), 도소매(12.7%) 등이, 제조업 중에서는 수송장비(4.5%), 금속제품(2.5%) 등이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 기여율 추이를 보면, 서비스업(85.3%)과 제조업(9.2%)은 전년 기여율 80.8%, 6.3%에 비해 증가한 반면, 건설업(3.1%)은 전년(11.1%)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서비스업 중 음식 및 숙박의 기여율은 전년도 -0.9%에서 9.9%로 반전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큰 일본식 음식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의 서양식 음식점 업체수가 증가[4]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4) 종사자 규모별 음식 · 숙박업체 수(개)

	2005		2006(A)		2007(B)		증감(B-A)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사업체수	비중	업체수	증가율(%)
총계	574,603	(100.0)	590,243	(100.0)	595,852	(100.0)	5,609	1.0
1-4인	515,964	(89.8)	534,999	(90.6)	537,255	(90.2)	2,256	0.4
5-9인	47,329	(8.2)	44,658	(7.6)	47,077	(7.9)	2,419	5.4
10인이상	11,310	(2.0)	10,585	(1.8)	11,520	(1.9)	935	8.8

자료 : 통계청, ( )내는 구성비

〈표 4〉

산업별 피용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00~'05		증감 '05~'06		증감 '06~'07	
									증감	기여율	증감	기여율	증감	기여율
농림어업	179	(1.7)	174	(1.4)	181	(1.4)	194	(1.4)	-4	[-0.3]	7	[1.7]	12	[2.1]
광업	17	(0.2)	16	(0.1)	15	(0.1)	16	(0.1)	-1	[-0.1]	-1	[-0.2]	0	[0.1]
제조업	2,805	(26.1)	2,917	(23.6)	2,944	(23.0)	2,999	(22.4)	113	[6.9]	26	[6.3]	55	[9.2]
소비재업종	891	(8.4)	730	(5.9)	705	(5.5)	703	(5.2)	-162	[-9.9]	-25	[-5.9]	-2	[-0.3]
음식료품	208	(1.9)	203	(1.6)	203	(1.6)	202	(1.5)	-5	[-0.3]	0	[-0.1]	-1	[-0.1]
섬유·가죽제품	445	(4.1)	298	(2.4)	279	(2.2)	273	(2.0)	-147	[-9.0]	-19	[-4.5]	-7	[-1.2]
목재·종이제품	92	(0.9)	89	(0.7)	89	(0.7)	88	(0.7)	-3	[-0.2]	-1	[-0.2]	-1	[-0.2]
인쇄·복제	42	(0.4)	52	(0.4)	46	(0.4)	56	(0.4)	10	[0.6]	-5	[-1.3]	10	[1.6]
기타제조업제품	104	(1.0)	87	(0.7)	87	(0.7)	85	(0.6)	-17	[-1.0]	0	[0.1]	-2	[-0.4]
기초소재업종	724	(6.8)	826	(6.7)	841	(6.6)	871	(6.5)	103	[6.3]	15	[3.7]	29	[4.9]
석유·석탄제품	18	(0.2)	14	(0.1)	17	(0.1)	18	(0.1)	-4	[-0.3]	4	[0.9]	0	[0.1]
화학제품	310	(2.9)	360	(2.9)	356	(2.8)	358	(2.7)	51	[3.1]	-4	[-1.0]	2	[0.3]
비금속광물제품	100	(0.9)	95	(0.8)	93	(0.7)	96	(0.7)	-5	[-0.3]	-2	[-0.5]	3	[0.4]
제1차금속제품	108	(1.0)	115	(0.9)	118	(0.9)	128	(1.0)	7	[0.5]	3	[0.8]	10	[1.6]
금속제품	188	(1.7)	241	(2.0)	256	(2.0)	271	(2.0)	54	[3.3]	14	[3.5]	15	[2.5]
조립가공업종	1,190	(11.1)	1,361	(11.0)	1,397	(10.9)	1,425	(10.6)	172	[10.5]	36	[8.6]	28	[4.6]
일반기계	285	(2.6)	318	(2.6)	332	(2.6)	340	(2.5)	34	[2.1]	14	[3.4]	8	[1.3]
전기·전자기기	543	(5.0)	597	(4.8)	592	(4.6)	586	(4.4)	55	[3.3]	-5	[-1.3]	-6	[-0.9]
정밀기기	57	(0.5)	77	(0.6)	83	(0.6)	81	(0.6)	19	[1.2]	6	[1.4]	-2	[-0.3]
수송장비	305	(2.8)	369	(3.0)	390	(3.0)	417	(3.1)	64	[3.9]	21	[5.1]	27	[4.5]
전력·가스·수도	75	(0.7)	69	(0.6)	70	(0.5)	72	(0.5)	-6	[-0.4]	1	[0.3]	2	[0.3]
건설업	1,186	(11.0)	1,563	(12.6)	1,609	(12.6)	1,628	(12.1)	377	[23.1]	46	[11.1]	19	[3.1]
서비스	6,488	(60.4)	7,642	(61.7)	7,978	(62.3)	8,492	(63.4)	1,154	[70.7]	336	[80.8]	513	[85.3]
도·소매	1,170	(10.9)	1,236	(10.0)	1,276	(10.0)	1,352	(10.1)	66	[4.0]	39	[9.5]	76	[12.7]
음식·숙박	595	(5.5)	655	(5.3)	651	(5.1)	711	(5.3)	60	[3.7]	-4	[-0.9]	60	[9.9]
운수·보관	580	(5.4)	659	(5.3)	662	(5.2)	677	(5.1)	79	[4.8]	3	[0.7]	15	[2.5]
통신·방송	139	(1.3)	148	(1.2)	148	(1.2)	157	(1.2)	10	[0.6]	0	[0.0]	9	[1.4]
금융·보험	694	(6.5)	545	(4.4)	560	(4.4)	596	(4.5)	-149	[-9.2]	15	[3.6]	37	[6.1]
부동산·사업서비스	793	(7.4)	1,389	(11.2)	1,538	(12.0)	1,691	(12.6)	596	[36.5]	148	[35.7]	154	[25.5]
공공행정·국방	675	(6.3)	700	(5.7)	710	(5.5)	725	(5.4)	25	[1.6]	10	[2.4]	15	[2.4]
교육·보건	1,264	(11.8)	1,690	(13.6)	1,797	(14.0)	1,929	(14.4)	425	[26.1]	107	[25.8]	132	[21.9]
사회·기타서비스	577	(5.4)	619	(5.0)	637	(5.0)	653	(4.9)	43	[2.6]	17	[4.1]	17	[2.8]
전산업	10,749	(100.0)	12,381	(100.0)	12,797	(100.0)	13,400	(100.0)	1,633	[100.0]	416	[100.0]	602	[100.0]

주 : 1) ( )내는 구성비

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요인(기여도 기준)

2006~2007년중 취업자 증가율 4.0%를 산출액 증가에 의한 증가요인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한 감소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산출액 증가에 의해서는 6.3% 증가한 반면,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서는 2.4% 감소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6.2%)은 산출액 증가에 의해 6.7% 증가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0.5% 감소하였으며, 제조업(+1.8%)은 산출액 증가에 의해 6.6% 증가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의해 4.9% 감소하였다.

특히 건설업은 취업자 증가율(1.4%)이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노동생산성에 의한 기여도가 전년 5.7%에서 -3.4%로 반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건물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비이용율이 높고 노동투입율이 낮은 토목건설이 공공부문 예산의 조기집행과 행정·혁신도시의 착공으로 증가하고, 주택건축의 경우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조기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노동투입이 낮은 초기공사 비중이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5〉 **산업별 취업자 증감요인[1](기여도 기준)**

(단위 : %)

	취업자 증감률			노동생산성 요인			산출액 요인		
	'00~'05	'05~'06	'06~'07	'00~'05	'05~'06	'06~'07	'00~'05	'05~'06	'06~'07
농림어업	-18.5	-1.4	-3.1	-19.1	-2.6	-5.4	0.6	1.2	2.3
광업	-8.6	-4.2	2.8	- 8.1	-1.1	8.1	-0.5	-3.1	-5.3
제조업	3.9	1.2	1.8	-23.6	-6.2	-4.9	27.5	7.4	6.6
전력·가스·수도	-7.8	2.0	2.9	-32.5	-0.9	-3.0	24.7	2.9	5.9
건설업	26.2	5.8	1.4	3.5	5.7	-3.4	22.8	0.1	4.8
서비스업	9.0	3.3	6.2	-17.5	-2.1	-0.5	26.5	5.4	6.7
전산업	5.5	2.6	4.0	-20.2	-5.2	-2.4	25.8	7.8	6.3

주 : 1)
$$\begin{aligned}\Delta L_w &= L_{w1} - L_{w0} \\ &= CT_1 l_{w1} - CT_0 l_{w0} \\ &= CT_1 l_{w1} - CT_0 l_{w1} + CT_0 l_{w1} - CT_0 l_{w0} \\ &= CT_0 (l_{w1} - l_{w0}) + (CT_1 - CT_0)\, l_{w1} \\ &= CT_0 (\Delta l_w) + (\Delta CT)\, l_{w1} \\ &= \text{노동생산성 요인} + \text{산출액 요인}\end{aligned}$$

단, L_w : 취업자 수, CT : 산출액, l_w : 취업계수, 0 : 전기, 1 : 당기

3. 직업별 취업구조

2007년중 취업구조를 직업별로 보면 전문직이 36.4%(6,841천명), 일반직이 63.6%(11,943천명)로 나타났으며, 전문직은 직종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여 2000년(31.0%) 이후 계속 증가하였다.

산업별 전문직 비중 추이를 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은 2000년 이후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나, 제조업의 증가 추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업종별 전문직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교육 및 보건(86.7%)과 금융 및 보험(64.0%)이,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45.7%)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 6〉 **직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00~'05		증감 '05~'06		증감 '06~'07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전문직	일반직
농림어업	14 (0.6)	2,230 (99.4)	10 (0.5)	1,820 (99.5)	12 (0.7)	1,791 (99.3)	11 (0.6)	1,738 (99.4)	-5 [-7.5]	-410 [-4.0]	3 [30.4]	-29 [-1.6]	-2 [-12.9]	-54 [-3.0]
광업	2 (10.5)	17 (89.5)	4 (22.4)	13 (77.6)	4 (26.1)	12 (73.9)	4 (26.2)	13 (73.8)	2 [14.2]	-4 [-4.5]	0 [11.7]	-1 [-8.8]	0 [3.1]	0 [2.7]
제조업	853 (27.4)	2,262 (72.6)	1,083 (33.5)	2,153 (66.5)	1,132 (34.6)	2,143 (65.4)	1,171 (35.1)	2,162 (64.9)	230 [4.9]	-109 [-1.0]	49 [4.5]	-10 [-0.5]	39 [3.4]	19 [0.9]
전기·전자기기	178 (31.9)	381 (68.1)	265 (43.1)	351 (56.9)	271 (44.4)	340 (55.6)	276 (45.7)	329 (54.3)	87 [8.3]	-30 [-1.6]	6 [2.2]	-11 [-3.1]	5 [2.0]	-11 [-3.3]
전기·가스·수도	43 (58.1)	31 (41.9)	47 (68.2)	22 (31.8)	47 (67.0)	23 (33.0)	50 (68.7)	23 (31.3)	4 [1.8]	-9 [-6.7]	0 [0.2]	1 [5.8]	3 [5.6]	-1 [-2.4]
건설업	305 (24.4)	944 (75.6)	407 (25.8)	1,169 (74.2)	428 (25.6)	1,241 (74.4)	442 (26.1)	1,249 (73.9)	102 [6.0]	225 [4.4]	20 [4.9]	72 [6.1]	14 [3.3]	9 [0.7]
서비스업	3,960 (39.7)	6,015 (60.3)	4,612 (42.4)	6,261 (57.6)	4,799 (42.7)	6,430 (57.3)	5,163 (43.3)	6,758 (56.7)	652 [3.1]	246 [0.8]	187 [4.1]	170 [2.7]	364 [7.6]	328 [5.1]
교육·보건	1,356 (87.4)	196 (12.6)	1,610 (87.0)	240 (13.0)	1,702 (86.5)	265 (13.5)	1,848 (86.7)	284 (13.3)	254 [3.5]	44 [4.2]	92 [5.7]	24 [10.2]	146 [8.6]	19 [7.2]
금융·보험	446 (63.8)	253 (36.2)	376 (68.3)	174 (31.7)	365 (64.5)	200 (35.5)	385 (64.0)	217 (36.0)	-70 [-3.4]	-79 [-7.2]	-11 [-3.0]	26 [15.0]	21 [5.6]	16 [8.2]
부동산·사업서비스	512 (60.3)	338 (39.7)	911 (59.1)	630 (40.9)	990 (58.6)	700 (41.4)	1,077 (58.1)	775 (41.9)	398 [12.2]	293 [13.3]	80 [8.7]	69 [11.0]	87 [8.8]	75 [10.8]
전산업	5,178 (31.0)	11,498 (69.0)	6,164 (35.0)	11,438 (65.0)	6,423 (35.6)	11,641 (64.4)	6,841 (36.4)	11,943 (63.6)	986 [3.5]	-60 [-0.1]	259 [4.2]	203 [1.8]	418 [6.5]	302 [2.6]

주 : 1) ( )내는 구성비, [ ]내는 연평균 증감율
2) 전문직 : 의회의원·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일반직 :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임업 및 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4. 학력별 취업구조

2007년중 취업구조를 학력별로 보면 대졸이상이 35.0%(6,570천명), 고졸이하가 65.0%(12,213천명)로 나타났는데,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은 높은 대학진학률[5]을 반영하여 2000년(25.1%)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산업별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 추이를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2000년 대비 약 10%p 증가하였다. 업종별로 대졸이상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교육 및 보건(74.8%), 금융 및 보험(59.3%)이, 제조업 중에서는 정밀기기(52.1%), 전기 및 전자기기(41.4%)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 7〉 **학력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00~'05		증감 '05~'06		증감 '06~'07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대졸 이상	고졸 이하
농림어업	61 (2.7)	2,184 (97.3)	73 (4.0)	1,757 (96.0)	77 (4.3)	1,727 (95.7)	85 (4.9)	1,664 (95.1)	11 [3.5]	-427 [-4.3]	4 [5.6]	-30 [-1.7]	8 [10.5]	-63 [-3.7]
광업	1 (5.3)	18 (94.7)	5 (29.1)	12 (70.9)	5 (27.7)	12 (72.3)	4 (22.0)	13 (78.0)	4 [38.3]	-6 [-7.3]	0 [-8.7]	0 [-2.3]	-1 [-18.5]	1 [10.9]
제조업	671 (21.5)	2,444 (78.5)	967 (29.9)	2,270 (70.1)	1,003 (30.6)	2,272 (69.4)	1,056 (31.7)	2,277 (68.3)	296 [7.6]	-174 [-1.5]	37 [3.8]	2 [0.1]	53 [5.3]	5 [0.2]
전기·전자기기	152 (27.2)	407 (72.8)	241 (39.1)	375 (60.9)	251 (41.1)	360 (58.9)	251 (41.4)	355 (58.6)	89 [9.6]	-32 [-1.6]	10 [4.3]	-16 [-4.2]	-1 [-0.3]	-5 [-1.4]
정밀기기	20 (32.3)	42 (67.7)	41 (49.7)	41 (50.3)	41 (46.3)	47 (53.7)	45 (52.1)	41 (47.9)	21 [15.2]	-1 [-0.4]	0 [0.0]	6 [14.4]	4 [10.1]	-6 [-12.5]
전기·가스·수도	33 (44.0)	42 (56.0)	45 (65.4)	24 (34.6)	41 (58.3)	29 (41.7)	45 (62.8)	27 (37.2)	12 [6.4]	-18 [-10.7]	-4 [-9.1]	5 [23.0]	4 [10.8]	-2 [-8.1]
건설업	255 (20.4)	994 (79.6)	407 (25.8)	1,169 (74.2)	435 (26.1)	1,233 (73.9)	436 (25.8)	1,255 (74.2)	152 [9.8]	175 [3.3]	28 [6.9]	64 [5.4]	1 [0.2]	22 [1.8]
서비스업	3,167 (31.8)	6,808 (68.2)	4,167 (38.3)	6,706 (61.7)	4,472 (39.8)	6,758 (60.2)	4,944 (41.5)	6,977 (58.5)	1,000 [5.6]	-102 [-0.3]	304 [7.3]	52 [0.8]	472 [10.6]	219 [3.2]
금융·보험	301 (43.0)	398 (57.0)	309 (56.1)	242 (43.9)	325 (57.5)	240 (42.5)	357 (59.3)	245 (40.7)	8 [0.5]	-157 [-9.5]	16 [5.3]	-1 [-0.6]	32 [9.9]	5 [2.0]
교육·보건	1,075 (69.3)	477 (30.7)	1,346 (72.8)	504 (27.2)	1,448 (73.6)	519 (26.4)	1,596 (74.8)	537 (25.2)	271 [4.6]	27 [1.1]	101 [7.5]	15 [3.1]	148 [10.2]	18 [3.4]
전산업	4,189 (25.1)	12,489 (74.9)	5,664 (32.2)	11,938 (67.8)	6,033 (33.4)	12,031 (66.6)	6,570 (35.0)	12,213 (65.0)	1,475 [6.2]	-551 [-0.9]	369 [6.5]	93 [0.8]	538 [8.9]	182 [1.5]

주 : 1) ( )내는 구성비, [ ]내는 연평균 증감

5) 고교졸업생의 대학진학률(%)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33.2	68.0	82.1	82.1	82.8

자료 : 2008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한국교육개발원)

5. 성별 취업구조

2007년중 취업구조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58.5%(10,985천명), 여성이 41.5% (7,799천명)로 나타났는데, 여성 취업자 비중[6]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산업별 여성 취업자 비중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서비스업은 2005년 이후 증가로 반전하였다.

업종별로 여성 취업자 비중을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음식 및 숙박(69.3%), 교육 및 보건(69.0%)이, 제조업 중에서는 섬유 및 가죽제품(57.6%)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표 7〉 **성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 '00~'05		증감 '05~'06		증감 '06~'07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농림어업	1,171 (52.2)	1,074 (47.8)	969 (52.9)	861 (47.1)	953 (52.8)	851 (47.2)	921 (52.7)	828 (47.3)	-203 [-3.7]	-213 [-4.3]	-16 [-1.7]	-10 [-1.2]	-32 [-3.3]	-23 [-2.7]
광업	19 (100.0)	0 (0.0)	16 (90.2)	2 (9.8)	15 (88.3)	2 (11.7)	16 (92.7)	1 (7.3)	-3 [-3.8]	2 [0]	-1 [-6.3]	0 [15.1]	1 [7.9]	-1 [-35.7]
제조업	2,061 (66.2)	1,054 (33.8)	2,206 (68.2)	1,030 (31.8)	2,255 (68.9)	1,020 (31.1)	2,300 (69.0)	1,032 (31.0)	145 [1.4]	-24 [-0.5]	49 [2.2]	-10 [-1.0]	46 [2.0]	12 [1.2]
섬유·가죽제품	217 (42.5)	294 (57.5)	151 (42.5)	205 (57.5)	146 (43.4)	191 (56.6)	140 (42.4)	190 (57.6)	-66 [-7.0]	-89 [-6.9]	-5 [-3.5]	-15 [-7.1]	-6 [-4.4]	-1 [-0.3]
전기·가스·수도	62 (82.7)	13 (17.3)	57 (82.3)	12 (17.7)	56 (79.7)	14 (20.3)	56 (77.6)	16 (22.4)	-5 [-1.8]	-1 [-1.3]	-1 [-1.3]	2 [17.3]	0 [0.2]	2 [13.4]
건설업	1,143 (91.5)	106 (8.5)	1,439 (91.3)	137 (8.7)	1,516 (90.9)	152 (9.1)	1,531 (90.5)	160 (9.5)	296 [4.7]	31 [5.3]	77 [5.4]	14 [10.5]	14 [0.9]	9 [5.7]
서비스업	5,298 (53.1)	4,677 (46.9)	5,785 (53.2)	5,088 (46.8)	5,930 (52.8)	5,300 (47.2)	6,161 (51.7)	5,761 (48.3)	487 [1.8]	411 [1.7]	144 [2.5]	212 [4.2]	231 [3.9]	461 [8.7]
음식·숙박	439 (32.1)	931 (67.9)	434 (31.0)	964 (69.0)	435 (31.0)	969 (69.0)	459 (30.7)	1,036 (69.3)	-5 [-0.2]	34 [0.7]	1 [0.1]	4 [0.5]	24 [5.6]	67 [6.9]
교육·보건	603 (38.9)	949 (61.1)	646 (34.9)	1,204 (65.1)	665 (33.8)	1,302 (66.2)	661 (31.0)	1,471 (69.0)	43 [1.4]	255 [4.9]	19 [2.9]	98 [8.1]	-4 [-0.5]	169 [13.0]
전산업	9,754 (58.5)	6,924 (41.5)	10,472 (59.5)	7,130 (40.5)	10,724 (59.4)	7,339 (40.6)	10,985 (58.5)	7,799 (41.5)	717 [1.4]	206 [0.6]	253 [2.4]	209 [2.9]	260 [2.4]	459 [6.3]

주 : 1) (　)내는 구성비, [　]내는 연평균 증감율

6) 연도별 여성취업자 비중(%)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36.6	39.6	41.5	40.5	40.6	41.5

Ⅲ. 노동연관효과

1. 노동계수

가. 취업계수

2007년중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취업계수[7](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8.2(명/10억원, 이하 같음)로 나타났으며,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39.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12.8명, 건설업 10.7명, 광업 5.8명, 제조업 3.0명, 전력 · 가스 · 수도 1.4명 순이었다.

업종별 취업계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도소매(24.6명), 음식 및 숙박(23.8명), 사회 및 기타서비스(16.6명)가, 제조업 중에서는 인쇄 및 복제(11.1명), 섬유 및 가죽제품(7.9명)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0.9명에서 2005년 8.7명, 2006년 8.4명, 2007년 8.2명으로 하락을 지속하였으나 하락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산업별로 취업계수 추이를 보면, 2000년 대비 제조업(4.4명 → 3.0명)과 서비스업(15.9명 → 12.8명)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빠르게 하락하였다. 제조업 중에서는 인쇄 및 복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의 취업계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으며,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는 2000년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5.8명 → 2.5명)으로 하락하는 등 조립가공업종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7) 취업계수[= 취업자 수(명)/산출액(10억원)]는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로 노동생산성의 역수 개념이다.

〈표 7〉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00~'05[1]	'05~'06	'06~'07
농림어업	52.7	42.6	41.5	39.3	-4.2	-2.6	-5.3
광업	5.8	5.4	5.3	5.8	-1.4	-1.9	9.4
제조업	4.4	3.4	3.2	3.0	-5.0	-5.9	-6.3
소비재업종	7.4	5.9	5.7	5.6	-4.4	-4.2	-1.5
음식료품	4.1	3.9	3.9	3.7	-1.0	0.0	-5.1
섬유·가죽제품	11.3	8.6	7.9	7.9	-5.3	-8.1	0.0
목재·종이제품	6.2	5.2	5.0	4.8	-3.5	-3.8	-4.0
인쇄·복제	10.7	8.9	9.7	11.1	-3.6	9.0	14.4
기타제조업제품	12.7	8.1	7.3	6.8	-8.6	-9.9	-6.8
기초소재업종	2.4	2.3	2.2	2.2	-1.1	-2.3	-1.6
석유·석탄제품	0.2	0.2	0.2	0.2	0.0	0.0	0.0
화학제품	3.0	2.7	2.6	2.5	-2.1	-3.7	-3.8
비금속광물제품	6.0	4.3	3.9	3.8	-6.4	-9.3	-2.6
제1차금속제품	1.2	1.0	1.0	1.0	-3.6	0.0	0.0
금속제품	8.1	6.6	6.5	6.4	-4.0	-1.5	-1.5
조립가공업종	5.4	3.5	3.2	2.9	-8.4	-9.6	-7.9
일반기계	7.1	5.0	4.7	4.2	-6.8	-6.0	-10.6
전기·전자기기	5.8	3.2	2.7	2.5	-11.2	-15.6	-7.4
정밀기기	9.7	7.2	6.1	5.6	-5.8	-15.3	-8.2
수송장비	3.8	2.9	2.8	2.7	-5.3	-3.4	-3.6
전력·가스·수도	2.2	1.5	1.5	1.4	-7.4	0.0	-6.7
건설업	10.1	10.5	11.1	10.7	0.8	5.7	-3.6
서비스	15.9	13.1	12.9	12.8	-3.8	-1.5	-0.8
도·소매	35.2	25.4	24.5	24.6	-6.3	-3.5	0.4
음식·숙박	28.7	24.7	23.5	23.8	-3.0	-4.9	1.3
운수·보관	13.0	12.1	11.9	11.2	-1.4	-1.7	-5.9
통신·방송	4.7	3.1	3.0	2.9	-8.0	-3.2	-3.3
금융·보험	9.7	6.2	5.9	5.5	-8.6	-4.8	-6.8
부동산·사업서비스	6.1	7.5	7.8	8.2	4.2	4.0	5.1
공공행정·국방	13.6	10.2	9.8	9.5	-5.6	-3.9	-3.1
교육·보건	17.5	16.0	15.9	16.3	-1.8	-0.6	2.5
사회·기타서비스	24.2	17.5	17.5	16.6	-6.3	0.0	-5.1
전산업	10.9	8.7	8.4	8.2	-4.4	-3.4	-2.4

주 : 1) 연평균 증감률

한편, 2007년중 우리나라 취업계수(명/100만US달러)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은 8.6명으로 일본 6.2명(2007년), 미국 6.3명(2006년) 등 다른 국가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계수를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3.2명으로 미국(3.9명)과 일본(3.4명), 독일(3.7명)보다 낮고 이탈리아(3.1명)와 네덜란드(2.3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13.7명)과 건설업(11.4명)은 이들 국가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8〉 **주요국의 취업계수**

(단위 : 명 / 100만US달러)

	한 국	미 국[1]	일 본[2]	독일[3]	이탈리아[3]	네덜란드[3]
	2007	2006	2007	2007	2007	2007
농림어업	41.8	4.7	20.6	12.7	7.4	2.5
광업	6.1	2.2	3.9	6.1	2.8	0.3
제조업	3.2	3.9	3.4	3.7	3.1	2.3
전력·가스·수도	1.5	1.6	1.1	2.3	1.2	0.6
건설업	11.4	8.6	8.6	8.7	4.4	3.4
서비스업	13.7	7.0	7.6	7.8	5.0	5.2
전산업	8.6	6.3	6.2	6.2	4.2	4.0

주 : 1) 해당국 산업연관표와 연간기준 환산인원으로 추정
2) ILO 노동통계와 2007 일본산업연관표(2009)를 이용하여 추정
3) OECD 산업통계(STAN Database)의 산출액과 ILO 노동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4) 해당연도 가격 기준

나. 고용계수

2007년중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고용계수[8](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5.8(명/10억원, 이하 같음)로,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10.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9.1명, 광업 5.2명, 농림어업 4.3명, 제조업 2.7명, 전력 · 가스 · 수도 1.4명 순이었다.

8) 불변가격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피용자 수[피용자 수(명)/산출액(10억원)]이다.

업종별 고용계수를 살펴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교육 및 보건(14.7명), 도소매(11.5명), 음식 및 숙박(11.3명), 사회 및 기타서비스(10.1명)가, 제조업 중에서는 인쇄 및 복제(8.1명), 섬유 및 가죽제품(6.6명)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7.0명에서 2005년 6.1명, 2006년 5.9명, 2007년 5.8명으로 하락을 지속하였으나 하락세는 둔화되었다.

산업별 추이를 보면, 제조업은 2000년(4.0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은 2005년(9.2명) 이후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인쇄 및 복제를 제외한 모든 부문의 고용계수가 하락하였는데 특히 조립가공업종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음식 및 숙박,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교육 및 보건은 상승하고 도소매, 통신 및 방송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의 경우 취업계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계수가 2005년 이후 상승하였는데, 이는 농업 및 어업생산활동의 기업화에 따라 피용자가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표 9〉

산업별 고용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00~'05[1]	'05~'06	'06~'07
농림어업	4.2	4.1	4.2	4.3	-0.5	2.4	2.4
광업	5.3	5.0	4.8	5.2	-1.2	-4.0	8.3
제조업	4.0	3.0	2.8	2.7	-5.6	-6.7	-3.6
소비재업종	6.1	4.7	4.5	4.4	-4.9	-6.0	-1.6
음식료품	3.0	2.8	2.8	2.7	-1.4	0.0	-3.6
섬유·가죽제품	9.9	7.2	6.6	6.6	-6.2	-8.3	0.0
목재·종이제품	5.4	4.6	4.4	4.2	-3.2	-4.3	-4.5
인쇄·복제	8.8	7.4	6.8	8.1	-3.4	-8.1	19.1
기타제조업제품	9.9	6.4	5.7	5.3	-8.4	-10.9	-7.0
기초소재업종	2.2	2.1	2.0	2.0	-1.2	-2.3	-1.5
석유·석탄제품	0.2	0.2	0.2	0.2	0.0	0.0	0.0
화학제품	2.8	2.6	2.4	2.3	-1.5	-7.7	-4.2
비금속광물제품	5.5	4.0	3.6	3.5	-6.2	-10.0	-2.8
제1차금속제품	1.2	1.0	1.0	1.0	-3.6	0.0	0.0
금속제품	6.8	5.5	5.5	5.4	-4.2	0.0	-1.8
조립가공업종	5.2	3.4	3.1	2.8	-8.3	-9.6	-7.9
일반기계	6.5	4.6	4.3	3.9	-6.7	-6.5	-9.3
전기·전자기기	5.6	3.1	2.7	2.4	-11.2	-12.9	-11.1
정밀기기	8.9	6.7	5.8	5.2	-5.5	-13.4	-10.3
수송장비	3.8	2.8	2.7	2.6	-5.9	-3.6	-3.7
전력·가스·수도	2.2	1.5	1.5	1.4	-7.4	0.0	-6.7
건설업	9.6	10.4	10.7	10.3	1.6	2.9	-3.7
서비스	10.4	9.2	9.1	9.1	-2.4	-1.1	0.0
도·소매	14.5	11.6	11.5	11.5	-4.4	-0.9	0.0
음식·숙박	12.5	11.5	10.9	11.3	-1.7	-5.2	3.7
운수·보관	9.5	8.4	8.2	7.7	-2.4	-2.4	-6.1
통신·방송	4.5	3.0	2.9	2.9	-7.8	-3.3	0.0
금융·보험	9.7	6.2	5.8	5.4	-8.6	-6.5	-6.9
부동산·사업서비스	5.0	6.8	7.1	7.5	6.3	4.4	5.6
공공행정·국방	13.6	10.2	9.8	9.5	-5.6	-3.9	-3.1
교육·보건	15.5	14.6	14.5	14.7	-1.2	-0.7	1.4
사회·기타서비스	13.3	10.6	10.4	10.1	-4.4	-1.9	-2.9
전산업	7.0	6.1	5.9	5.8	-2.7	-3.3	-1.7

주 : 1) 연평균 증감률

2. 노동유발효과

가. 최종수요 항목별 유발효과[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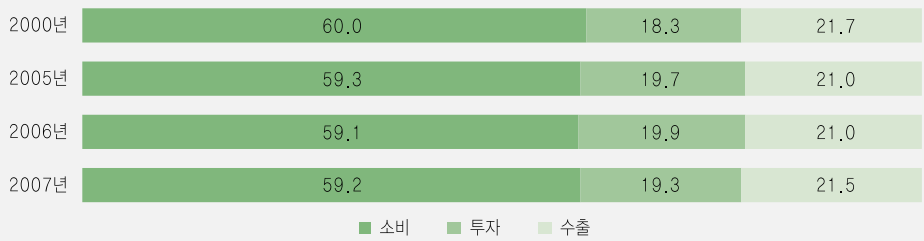
1) 취업유발효과

2007년중 최종수요 1,354.5조원에 의해 창출된 취업자는 18,784천명이며,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구성비를 보면 소비 59.2%, 수출 21.5%에 이어 투자 19.3%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구성비 추이를 보면, 소비(59.2%)는 2005년 이후 59% 수준에서 정체된 가운데 전년대비 투자는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하였다. 투자의 취업유발 구성비가 감소한 것은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에, 수출의 취업유발 구성비가 증가한 것은 취업계수가 높은 서비스의 수출비중이 확대된 데 각각 기인[10)]하였다.

〈그림 1〉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구성비 추이

(단위 : %)



9) 최종수요와 취업유발의 관계는 최종수요가 생산을 유발($X=(I-A^d)^{-1}Y^d$)하고, 유발된 생산이 취업을 창출($L=\hat{l}X=\hat{l}(I-A^d)^{-1}Y^d$) 하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한다.
(단, X : 총산출액, $(I-A^d)^{-1}$: 생산유발계수행렬, Y^d : 국내최종수요벡터
$\hat{l}$: 취업계수($=\hat{L}\hat{X}^{-1}$, L는 산업별 취업자 수벡터), ^는 대각행렬임

10)

	2006년	2007년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17.3	16.8
서비스 수출비중(%)	14.2	15.0

2007년중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을 나타내는 취업유발계수는 13.9명[11]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소비가 17.1명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자 13.1명, 수출 9.4명 순이었다.

최종수요 항목별 10억원당 취업유발인원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소비 투자 수출 등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수출의 취업유발계수[12]가 소비 및 투자보다 빠르게 하락하였다. 수출의 취업유발계수 하락세가 빠른 것은 수출의 수입유발계수[13]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하며, 이는 수출의 국내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 인원 · 계수 · 의존도 추이**

	취업유발인원(천명)[1]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2]						취업유발의존도(%)			
									연평균증감율					
	2000	2005	2006	2007	2000	2005 (A)	2006 (B)	2007 (C)	(B/A)	(C/B)	2000	2005	2006	2007
소 비	10,012	10,431	10,684	11,116	21.4	17.8	17.3	17.1	-2.8	-1.2	60.0	59.3	59.1	59.2
투 자	3,048	3,470	3,588	3,621	15.0	13.6	13.5	13.1	-0.7	-3.0	18.3	19.7	19.9	19.3
수 출	3,617	3,700	3,791	4,046	15.3	10.8	9.9	9.4	-8.3	-5.1	21.7	21.0	21.0	21.5
계	16,677	17,601	18,064	18,784	18.4	14.9	14.2	13.9	-4.7	-2.1	100.0	100.0	100.0	100.0

주 : 1)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인원 $= \hat{l}(I - A^d)^{-1}Y^d$

2)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 \dfrac{\hat{l}(I - A^d)^{-1}Y^d}{\text{항목별 최종수요계}}$

단, $\hat{l}$ 은 취업계수 대각행렬, A^d는 국산 투입계수행렬, $(I - A^d)^{-1}$는 생산유발계수행렬, Y^d는 국산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벡터임

2) 고용유발효과

2007년중 최종수요 1,354.5조원에 의해 창출된 피용자는 13,400천명이며,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 구성비를 보면 소비 54.7%, 수출 22.7%, 투자 22.6%로 나타난 가운데 전년대비 소비 및 수출은 소폭 증가하고 투자는 감소하였다.

11) 취업유발인원 13.9명은 최종수요 1,354.5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18,784천명의 취업자가 창출(=18,784천명/1,354.5조원)되었음을 의미한다.

12) 2000년 대비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하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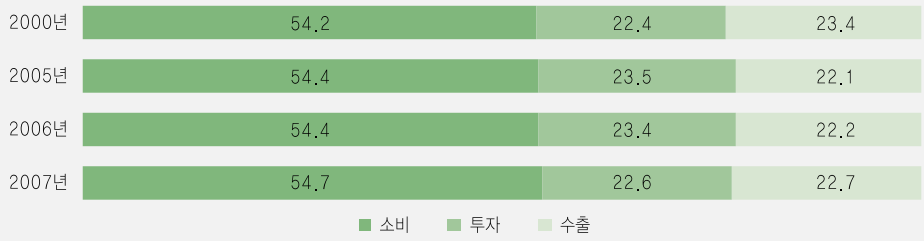
소비	투자	수출
-20.1	-12.7	-38.6

13) 수출의 수입유발계수

2005년	2006년	2007년
0.383	0.391	0.400

〈그림 2〉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 구성비 추이

(단위 : %)



2007년중 최종수요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을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는 9.9명[14]이며, 최종수요 항목별로 보면 소비가 11.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투자 11.0명, 수출 7.1명의 순이었다.

한편, 최종수요 항목별 10억원당 고용유발인원 추이를 보면, 전년대비 소비는 동일한 수준을 보인 반면 투자와 수출은 하락하였는데 특히 수출이 투자에 비해 빠르게 하락하였다.

〈표 11〉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 인원 · 계수 · 의존도 추이

	고용유발인원(천명)[1]				고용유발계수(명/10억원)[2]						고용유발의존도(%)			
	2000	2005	2006	2007	2000	2005 (A)	2006 (B)	2007 (C)	연평균증감율 (B/A)	연평균증감율 (C/B)	2000	2005	2006	2007
소 비	5,824	6,732	6,956	7,323	12.5	11.5	11.3	11.3	-1.7	0	54.2	54.4	54.4	54.7
투 자	2,408	2,915	2,996	3,032	11.9	11.4	11.2	11.0	-1.8	-1.8	22.4	23.5	23.4	22.6
수 출	2,517	2,735	2,846	3,045	10.6	8.0	7.4	7.1	-7.5	-4.1	23.4	22.1	22.2	22.7
계	10,749	12,381	12,797	13,400	11.8	10.5	10.1	9.9	-3.8	-1.9	100.0	100.0	100.0	100.0

주 : 1)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인원 $= \hat{l}(I - A^d)^{-1}Y^d$

2) 최종수요 항목별 고용유발계수 $= \dfrac{\hat{l}(I - A^d)^{-1}Y^d}{\text{항목별 최종수요계}}$

단, $\hat{l}$ 은 고용계수 대각행렬, A^d는 국산 투입계수행렬, $(I - A^d)^{-1}$는 생산유발계수행렬, Y^d는 국산최종수요(소비, 투자, 수출)벡터임

14) 고용유발인원 9.9명은 최종수요 1,354.5조원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13,400천명의 피용자가 창출(=13,400천명/1,354.5조원)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산업별 유발효과

1) 취업유발효과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2007년중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15](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13.9(명/10억원, 이하 같음)로,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이 46.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18.1명, 건설업 16.8명, 광업 10.3명, 제조업 9.2명, 전력 · 가스 · 수도 3.5명 순이었다.

업종별로 취업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음식 및 숙박(36.5명), 도소매(29.5명)가,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23.0명), 인쇄 및 복제(19.4명)가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취업유발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18.1명에서 2005년 14.7명, 2006년 14.3명, 2007년 13.9명으로 하락을 지속하였다. 산업별로 취업유발계수 추이를 보면 2000년 대비 제조업(13.2명 → 9.2명)과 서비스업(21.5명 → 18.1명)이 모두 하락하였으나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빠르게 하락하였으며, 건설업은 건설경기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다.

제조업 중에서 인쇄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제1차금속제품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는데,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14.5명 → 6.5명)는 2000년 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5) 특정 산업부문 생산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 ·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표 12〉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00~'05[1]	'05~'06	'06~'07
농림어업	62.9	51.1	50.2	46.8	-4.1	-1.8	-6.8
광업	9.8	10.4	10.1	10.3	1.2	-2.9	2.0
제조업	13.2	10.1	9.6	9.2	-5.2	-5.0	-4.2
음식료품	32.3	24.7	23.9	23.0	-5.2	-3.2	-3.8
섬유·가죽제품	22.7	17.2	15.6	15.5	-5.4	-9.3	-0.6
목재·종이제품	14.3	12.3	12.0	11.5	-3.0	-2.4	-4.2
인쇄·복제	19.5	17.1	17.8	19.4	-2.6	4.1	9.0
석유·석탄제품	0.9	1.0	1.1	1.3	2.1	10.0	18.2
화학제품	9.7	8.5	8.1	7.7	-2.6	-4.7	-4.9
비금속광물제품	13.8	11.0	10.2	9.7	-4.4	-7.3	-4.9
제1차금속제품	5.3	5.1	5.3	5.7	-0.8	3.9	6.8
금속제품	14.1	12.9	13.1	12.8	-1.8	1.6	-2.3
일반기계	16.0	12.2	11.8	11.2	-5.3	-3.3	-5.1
전기·전자기기	14.5	8.3	7.3	6.5	-10.6	-12.0	-11.0
정밀기기	19.4	13.9	12.4	11.6	-6.5	-10.8	-6.5
수송장비	12.7	9.9	9.9	9.5	-4.9	0.0	-4.0
기타제조업제품	21.4	16.4	15.4	14.5	-5.2	-6.1	-5.8
전력·가스·수도	5.3	3.6	3.5	3.5	-7.4	-2.8	0.0
건설업	17.0	16.6	17.3	16.8	-0.5	4.2	-2.9
서비스	21.5	18.4	18.2	18.1	-3.1	-1.1	-0.5
도·소매	40.0	30.4	29.6	29.5	-5.3	-2.6	-0.3
음식·숙박	43.0	37.8	36.5	36.5	-2.5	-3.4	0.0
운수·보관	16.5	15.4	15.0	14.4	-1.4	-2.6	-4.0
통신·방송	12.8	9.7	10.0	10.4	-5.4	3.1	4.0
금융·보험	13.9	10.5	10.4	10.0	-5.5	-1.0	-3.8
부동산·사업서비스	10.6	11.7	12.1	12.4	2.0	3.4	2.5
공공행정·국방	18.4	14.7	14.3	14.2	-4.4	-2.7	-0.7
교육·보건	21.4	20.2	20.2	20.6	-1.1	0.0	2.0
사회·기타서비스	32.3	24.9	25.0	23.9	-5.1	0.4	-4.4
전산업	18.1	14.7	14.3	13.9	-4.1	-2.7	-2.8

주 : 1) 연평균 증감률

(취업유발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구분)

2007년중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16] 13.9명은 직접효과에 의해 8.2명, 간접효과에 의해 5.7명이 각각 유발되어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산업별 간접유발인원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7.5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제조업 6.2명, 건설업 6.1명, 서비스업 5.3명, 광업 4.5명 순이었다.

업종별로 간접유발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19.3명), 인쇄 및 복제(8.3명), 기타 제조업제품(7.7명), 섬유 및 가죽제품(7.6명)이, 서비스업 중에서는 음식 및 숙박(12.7명), 통신 및 방송(7.5명), 사회 및 기타서비스(7.3명)가 각각 크게 나타났다.

한편, 간접취업유발률[17]을 살펴보면 전산업 평균은 69.5%이며, 제조업(206.7%)과 전력 · 가스 · 수도(150.0%)는 100%보다 높고, 농림어업(19.1%), 서비스업(41.4%), 건설업(57.0%)은 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제조업 중에서는 석유 및 석탄제품(550.0%), 음식료품(521.6%), 제1차금속제품(466.0%) 등이 10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중에서는 통신 및 방송(258.6%)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도소매(19.9%)는 농림어업(19.1%)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간접유발효과를 나타냈는데, 이는 도소매의 중간투입률이 다른 업종들에 비해 낮은 데 주로 기인하였다.

16) 특정 산업부문 생산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의 취업자는 해당 산업에서 동 금액만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인원인 직접효과(= 취업계수)와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인원인 간접 취업유발효과로 구분된다. (취업유발계수 = 취업계수 + 간접 취업유발효과)

17) 간접취업유발률[=(간접유발인원/직접유발인원)×100]이 100 이상이면 총 취업유발인원중 간접 유발인원이 직접 유발인원보다 더 큰 것을 의미한다.

〈표 13〉 **산업별 간접 취업유발효과**

(단위 : 명/10억원, %)

	총유발인원 (A)	직접유발인원 (B)	간접유발인원 (C=A-B)	간접유발률 (C/B)
농림어업	46.8	39.3	7.5	19.1
광업	10.3	5.8	4.5	77.6
제조업	9.2	3.0	6.2	206.7
음식료품	23.0	3.7	19.3	521.6
섬유·가죽제품	15.5	7.9	7.6	96.2
목재·종이제품	11.5	4.8	6.7	139.6
인쇄·복제	19.4	11.1	8.3	74.8
석유·석탄제품	1.3	0.2	1.1	550.0
화학제품	7.7	2.5	5.2	208.0
비금속광물제품	9.7	3.8	5.9	155.3
제1차금속제품	5.7	1.0	4.7	466.0
금속제품	12.8	6.4	6.4	100.0
일반기계	11.2	4.2	7.0	166.7
전기·전자기기	6.5	2.5	4.0	160.0
정밀기기	11.6	5.6	6.0	107.1
수송장비	9.5	2.7	6.8	251.9
기타제조업제품	14.5	6.8	7.7	113.2
전력·가스·수도	3.5	1.4	2.1	150.0
건설업	16.8	10.7	6.1	57.0
서비스	18.1	12.8	5.3	41.4
도·소매	29.5	24.6	4.9	19.9
음식·숙박	36.5	23.8	12.7	53.4
운수·보관	14.4	11.2	3.2	28.6
통신·방송	10.4	2.9	7.5	258.6
금융·보험	10.0	5.5	4.5	81.8
부동산·사업서비스	12.4	8.2	4.2	51.2
공공행정·국방	14.2	9.5	4.7	49.5
교육·보건	20.6	16.3	4.3	26.4
사회·기타서비스	23.9	16.6	7.3	44.0
전산업	13.9	8.2	5.7	69.5

2) 고용유발효과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2007년중 우리나라 전산업 평균 고용유발계수[18](2005년 불변가격 기준)는 9.5(명/10억원, 이하 같음)로,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이 14.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서비스업 12.6명, 광업 8.3명, 농림어업 7.3명, 제조업 6.6명, 전력 · 가스 · 수도 3.1명 순이었다.

업종별로 고용유발계수를 보면 서비스업 중에서는 교육 및 보건(17.6명), 음식 및 숙박(16.2명), 도소매(15.1명)가, 제조업 중에서는 인쇄 및 복제(13.8명), 섬유 및 가죽제품(11.9명)이 각각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고용유발계수 추이를 보면, 2000년 11.1명에서, 2005년 9.9명, 2006년 9.7명, 2007년 9.5명으로 하락을 지속하였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2000년(8.8명)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서비스업은 2000년 13.7명에서 2005년 12.6명으로 하락한 이후 정체를 지속하였으며, 건설업은 2000년 이후 건설경기에 따라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였다. 제조업 중에서 인쇄 및 복제, 석유 및 석탄제품, 제1차금속제품 등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고용유발계수가 전년대비 하락하였는데, 특히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인 전기 및 전자기기(11.6명 → 5.4명)는 2000년 대비 절반이하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18) 특정 산업부문 생산제품에 대한 최종수요가 10억원 발생할 경우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 ·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피용자 수를 의미한다.

〈표 14〉 **산업별 고용유발계수 추이**

(단위 : 명/10억원, %)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증감률		
					'00~'05[1]	'05~'06	'06~'07
농림어업	7.4	7.2	7.5	7.3	-0.5	4.2	-2.7
광업	8.0	8.3	8.0	8.3	0.7	-3.6	3.8
제조업	8.8	7.2	6.9	6.6	-3.9	-4.2	-4.3
음식료품	8.4	8.0	7.9	7.9	-1.0	-1.3	0.0
섬유·가죽제품	18.0	13.2	12.0	11.9	-6.0	-9.1	-0.8
목재·종이제품	10.9	9.4	9.2	8.7	-2.9	-2.1	-5.4
인쇄·복제	14.9	13.0	12.3	13.8	-2.7	-5.4	12.2
석유·석탄제품	0.7	0.7	0.8	1.0	0.0	14.3	25.0
화학제품	7.5	6.7	6.4	6.1	-2.2	-4.5	-4.7
비금속광물제품	11.2	8.8	8.1	7.7	-4.7	-8.0	-4.9
제1차금속제품	4.2	4.0	4.2	4.4	-1.0	5.0	4.8
금속제품	11.0	10.0	10.2	10.1	-1.9	2.0	-1.0
일반기계	12.9	10.0	9.6	9.1	-5.0	-4.0	-5.2
전기·전자기기	11.6	6.9	6.0	5.4	-9.9	-13.0	-10.0
정밀기기	15.8	11.6	10.4	9.7	-6.0	-10.3	-6.7
수송장비	10.4	8.2	8.2	7.8	-4.6	0.0	-4.9
기타제조업제품	15.6	12.2	11.4	10.7	-4.8	-6.6	-6.1
전력·가스·수도	4.7	3.2	3.1	3.1	-7.4	-3.1	0.0
건설업	14.6	14.8	15.2	14.8	0.3	2.7	-2.6
서비스	13.7	12.6	12.6	12.6	-1.7	0.0	0.0
도·소매	17.6	15.2	15.1	15.1	-2.9	-0.7	0.0
음식·숙박	17.1	16.5	15.8	16.2	-0.7	-4.2	2.5
운수·보관	11.8	10.7	10.4	9.9	-1.9	-2.8	-4.8
통신·방송	9.5	7.5	7.7	7.9	-4.6	2.7	2.6
금융·보험	12.7	9.6	9.4	9.1	-5.4	-2.1	-3.2
부동산·사업서비스	8.2	9.8	10.2	10.6	3.6	4.1	3.9
공공행정·국방	16.5	13.0	12.6	12.4	-4.7	-3.1	-1.6
교육·보건	18.0	17.4	17.4	17.6	-0.7	0.0	1.1
사회·기타서비스	18.5	15.5	15.4	15.0	-3.5	-0.6	-2.6
전산업	11.1	9.9	9.7	9.5	-2.3	-2.0	-2.1

주 : 1) 연평균 증감율

Ⅲ. 요약 및 시사점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의 주요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중 우리나라 취업자는 18,784천명으로 전년대비 4.0%(720천명) 증가하였으며, 고용형태별로는 상용직,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를 주도하였다. 서비스업 취업자의 증가는 할인매장과 체인화 편의점의 점포수 증가, 인력 파견 등의 아웃소싱과 연구인력 증가, 사교육 확대 등에 따라 도소매, 사업서비스 및 교육서비스 등의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하였다.

직종 전문화 추세와 대학진학률의 지속적 상승으로 전문직 및 대졸이상 취업자 비중이 2000년 이후 서비스와 제조업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여성 취업자의 비중도 2005년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증가하였다.

한편, 산출액 10억원당 취업자수를 나타내는 취업계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업은 2000년 이후 건설경기를 반영하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다. 외국의 취업계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미국, 일본, 독일보다 낮고 이탈리아, 네덜란드보다 높은 반면, 서비스업은 이들 국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주력 수출상품인 조립가공제품에 사용되는 수입중간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출의 국내 고용창출 능력이 계속 약화되는 가운데, 소비 투자의 고용창출 능력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당면 과제인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고용증가를 서비스업, 전문직, 대졸이상, 여성취업자가 주도한 점을 감안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통 · 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이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과 산학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고학력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대졸이상 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전기 및 전자기기, 교육 및 보건, 금융 및 보험업 등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성의 취업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확충 등의 노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여성취업자가 도소매와 음식 및 숙박업 등에서 주로 증가한 측면을 감안하여 여성고용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취업유발계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제조업이 우리나라의 산출액 증가를 주도하고 간접 취업유발효과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원천기술 개발 및 소재부품의 국산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고용창출 능력을 제고하고,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디지털 솔루션 등의 분야들을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경제통계국 투입산출팀 과장 권태현, 조사역 하지원〉